

2018년 AAAAI 학회를 다녀와서

이소희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

2018년 AAAAI는 Orlando, Florida에서 3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5년 코엑스에서 열렸던 국제학회 이 후 참석하게 되는 '진짜' 해외 학회라 설레는 마음으로 학회에서 들을 강의 시간표를 빽빽하게 짜고, 틈틈이 Orlando 여행기를 보면 학회 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행기들을 보니 Orlando eye, universal studio, sea world, 마담 투소 박물관등 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획을 좀 짜봤지만, 그래도 첫 학회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회가 열리는 시즌엔 한국은 정말 추웠는데, 따뜻한 나라로 간다고 하니 좋은 날씨를 즐길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Orlando로 가는 직항은 없었습니다. 조금 살펴보니, 대한항공은 Orlando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번 있는 스케줄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기에 새벽 5시에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Atlanta를 경유하여 Orlando를 가는 스케줄이었고, 비행시간만 총 18시간이고, 경유시간도 짧아 걱정이 많이 되었던 여정이었습니다.

Vehicles만 타면 자는 평소와 달리 이륙하고 4시간쯤 지났을 때까지 잠이 안 와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도와주고도 법적인 문제로 곤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하나 고민을 했으나, 교수님들께서 바로 나가서 처치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가서 환자를 보았습니다. 90세 베트남국적의 남환 이었고 CABG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chest pain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쪽으로 환자를 옮겨 신체진찰을 하는데 환자는 이미 femoral a.에서도 pulse가 잡히지 않고, stupor mentality를 보였습니다. AED를 붙여보니 ST depression이 저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seizure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등에서 땀이 짹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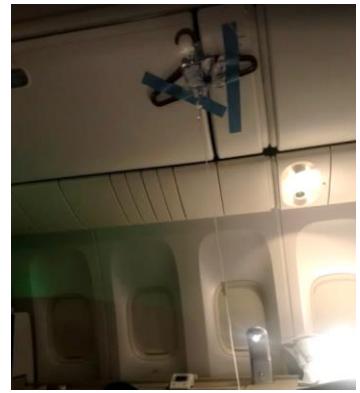


Figure 1. 비행기안에서 환자 모니터링 중 찍은 사진, 옷걸이로 고정한 수액^^

니다. 병원에서 늘 하던 대로 "C-line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Airway 확보하고, 이상민 교수님께서 메디컷을 이용해 jugular v. 을 통해 line을 잡는데 성공하여 환자에게 수액을 줄 수 있었고 이후 BP가 회복되고 환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이 없어 방송을 통해 NTG를 구해 주고 line을 유지하고 O2 apply를 하며 남은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기장님이 오셔서 회항을 해야 하나, 법적인 문제는 없나 등을 저희와 상의했고, 보호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환자의 사전 의향은 어땠나를 알아보고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딸)의 의견을 듣고 이상민, 김주희, 진현정 교수님과 모니터링을 하며 Atlanta까지 오게 되었고 환자는 Atlanta 내리기전에 일어나 앓아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겠다고 하고, 죽을 달라고 하여 먹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기장님께서 이렇게 단합이 잘되는(?) 의사들을 처음 보았다고 하였는데, 교수님들 덕분에 저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Figure.2.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 주변 모습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도착한 Orlando는 피곤한 저와 달리 날씨가 정말 좋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도착 당일은 잠만 푹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 관심 분야였던 Chitinase와 primary immunodeficiency에 대한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관심있는 분이 드물다고 생각했던 primary immunodeficiency의 진단, 치료에 대한 세션의 청중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고 더 힘을 내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motivation이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15년 석사 논문으로 작성했던 chitinase의 역할에 대한 session이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 많은 역할 규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아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Plenary session 을 비롯해 여러 강의에서 환경 (온도변화, 미세먼지)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인에서도 food allergy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의 시작을 좋은 기회로 좋은 학회를 좋은 선생님, 교수님들과 다녀올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9년 AAAI는 2월22일부터 25일까지 San Francisco, California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 학회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Figure.3. 학회장 안에서 교수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